

B A Z A A R

Harper's

www.imagazinekorea.com
값 6,900원

바이오 화장품의 현주소
프레스티지 뷰티의 충분조건
가을엔 머스크 향수

Backstage
Beauty

아홉 번째 시네마 엔젤
이정재와 이솜

ARTISTIC HOTEL

디자인 천국 부아부세
도시에서 식물과 사는 법
아트 인스타그램

정용화가 꿈꾸는 일탈
문근영의 시간은 흐른다
공승연의 또 다른 얼굴

PLUS;

조르지오 아르마니
알레산드로 미켈레
치토세 아베



별책부록

HARPER'S BAZAAR

ART



순수의 시대라는 이름의 섬

순진한 아티스트의 작품일수록 예술은 실존에 한 발 더 가까워진다. 우고 론디노네는 탁월한 조형 감각을 현대인들에게 절실한 삶의 철학과 연결 지으며 동시대적인 동시에 시대를 초월하는 저력을 발휘한다.

우 고 론디노네(Ugo Rondinone)의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순수의 시대'라는 부제가 떠올랐다. 그의 작품에는 정교한 논리와 순진무구함이 공존한다. 지난 아트바젤 기간, 바젤의 유서 깊은 성당 앞에서 본 사람 모양의 거대한 청석조각은 바젤이 생겨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원초적이었다. 2013년, 록펠러 센터 앞의 광장에 설치된 아홉 개의 거대한 돌조각들을 봤을 때에는 마천루 사이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조각의 형상들이 마치 SF영화 속에서 문명의 끝에 다다른 인류를 구하러 온 '자연의 전사'들을 연상시켰다. '최첨단의 현대도시를 상징하는 곳에서 인간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작업 의도를 담은 제목 'Human Nature' 역시 너무 순진무구한 나머지 초월적으로 느껴졌다.

2015년의 지금, 서울 삼청동에서는 그것들과 꼭 닮은 청석조각 다섯 개가 화이트 큐브를 떠받치고 있다. (10월 11일까지) 앞뒤도, 성별도, 표정도 없이 그저 거친 돌을 쌓아 올려 만든 작품은 10여 톤에 이르는 육중함이 아니라도 존재만으로 이곳을 하나의 완벽한 섬으로 만들어낸다. 작가는 이 섬에 'Feelings'라는 순진한 이름을 붙이고는 이렇게 말한다. "그 순간에 작품들과 같은 장소에 있다는 것, 제 작품과 함께한 그 시간만큼은 예술과 본인에 대한 성찰이 가능했던 시간이었기를 바란다. 예술이란 경험되어야 하니까. 이 생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 돌을 발견하려고 뉴욕 주의 시골길을 어슬렁거리는 그의 모습이 겹쳐졌기 때문인지, 현학적이어서 의미 있다는 현대미술계의 고약한 습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실로 낭만적이었다. 확실히 그는 어른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속 깊은 소년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내 고민이 생겼다. 요즘 현대사회에서 '자연'이 만병통치약처럼 너무 흔하게 쓰이고 있는 터라, 우고 론디노네의 이 자연적인 기념비를 그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지 헷갈렸기 때문이다. 그는 결정적인 힌트를 주었다. "나의 모든 작업은 19세기 독일 낭만주의에서 시작한다." 19세기 독일의 낭만주의는 세기말에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급격히 파생된 합리성의 논리에 대항하고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 당시의 아티스트들은 일몰, 별, 풍경, 구름, 빛, 돌, 나무 등 길들여지지 않은(합리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자연적 요소에 심취했고, 인간의 감정, 꿈 등 인간적 요소를 소중하게 생각했다. 스스로 낭만주의의 후예라 자처하는 그는 오랫동안 풍경화를 그리고, 별을 그리고, 구름을 만들고, 무지개를 만들고, 돌을 사용해왔다.

우고 론디노네가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현대 미술계에서 핵심적인 아티스트로 회자되는 까닭은 그

가 재해석한 19세기 낭만주의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낭만주의는 단순히 자연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무한함 앞에서 있는 한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존재한다는 건 시간과 공간에 있다는 의미이며, 그 절대적인 개념 앞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것이다. 우고 론디노네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수동적'으로 말이다. "내 작업의 논리는 수동성, 즉 당신이 이행할 필요가 없는 무언가다. 이는 고립, 평온과 관련된 것이고 꿈같은 것이다. 내가 사용하는 모든 자연적인 상징들은 낭만주의 사조로부터 나왔다. 낭만주의 운동은 비합리성과 꿈을 결합한 첫 번째 운동이었고, 그래서 이 사조가 중요하다. 내가 하는 예술이라는 건 논리적이거나 생산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곧 자기성찰이라는 믿음. 생각해보자, 우리에게 과연 이런 시간이 있었나?

우고 론디노네가 피력하는 '수동성'을 이해한다는 건 체득한다는 것에 더 가깝다. 그는 지난해 상하이 록펠러 미술관에서 선보인 전시에서 광대를 전시장에 데려다 놓고는 그냥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어쨌든 아무것도 하지 않게 했다. 관객들은 이들이 슬퍼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고 했지만, 단지 어떤 움직임이나 의식적인 평가 없이 그들 자체로 존재하는 수동적인 존재였을 뿐이다. 움직임은 기능의 가치를 설정하는 반면, 수동성은 느낌의 가치를 만든다. 우고 론디노네는 그 느낌 속에 예술의 힘이 있다고 믿는다. "느림이란 우리가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는 그 순간이다." 실제 그는 공장을 돌려 예술품을 생산하여 스타로 부상한 몇몇 예술가와와는 달리 여전히 혼자 작업하는 아티스트의 낭만적 이미지를 고수하고 있다. 그에게 예술하는 방식은 곧 예술가로 사는 동기가 된다고, 이전 인터뷰에서 말했다. "나는 내 시간을 스스로 조직한다. 고립된 공간의 상징이 되는 나의 전시에서 늘 사회를 배제한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의 시간이 배제된 시간. 이것은 우고 론디노네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시간 개념이다.

우고 론디노네의 작품은 이해하기는 쉬울지언정 설명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과연 한 사람의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작업 스타일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아마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그를 다른 작가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른다. 뉴욕커 중 절반은 록펠러 센터 앞에 거대한 돌조각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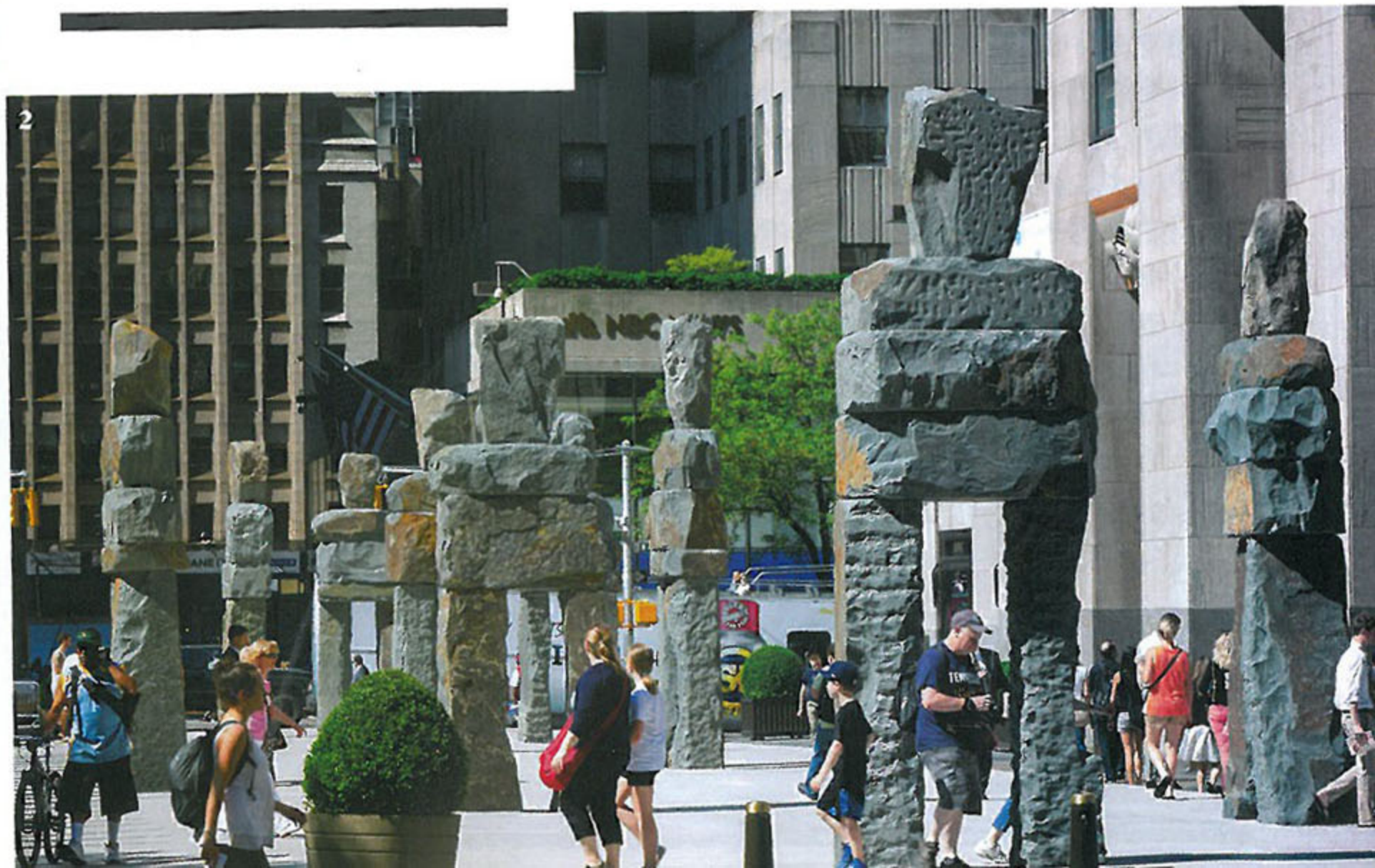
머지 절반은 뉴뮤지엄을 장식한 무지개 설치물로, 파리지앵들은 킬리리 공원에 설치된 12개의 얼굴 모양을 한 청동 조각상으로, 상하이 사람들은 전시장에 만달라(둥근 원 안에 우주를 담은 그림으로 불교 등의 종교에서 쓰인다) 그림 앞에 광대를 방치한 괴짜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에서는 어떨까? 직접 대면한 우고 론디노네는 5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평생 채식만 한 사람처럼 맑은 얼굴의 소유자였다.

“내 작업의 논리는 수동성,
즉 당신이 이행할 필요가
없는 무언가다.
이는 고립, 평온과 관련된
것이고 꿈 같은 것이다.”



1 'The inquisitive', 2015

2 2013년 록펠러 센터 앞에 설치된 우고 론디노네의 청석조각 작품들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엄청난 아트북을 보고 있었다.(웃음) 고맙다. (1991년에 한 전시 전경 사진을 펴서 보여주며) 이게 나의 첫 번째 풍경 전시였다. 외부의 풍경을 제어한 후 내가 그린 풍경을 보여주었다. 봐라, 이 그림에도 돌이 들어가 있다. 크기도 굉장히 큰데, 풍경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목은 늘 날짜로 되어 있다. 이 전시 자체가 시간과 공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테마였다. 그리고 일 년 후 같은 갤러리에서, 같은 컨디션 하에 만달라 그림 전시를 했다. 똑같이 창문이 폐쇄되어 있었고, 똑같이 시간이 제목인 작품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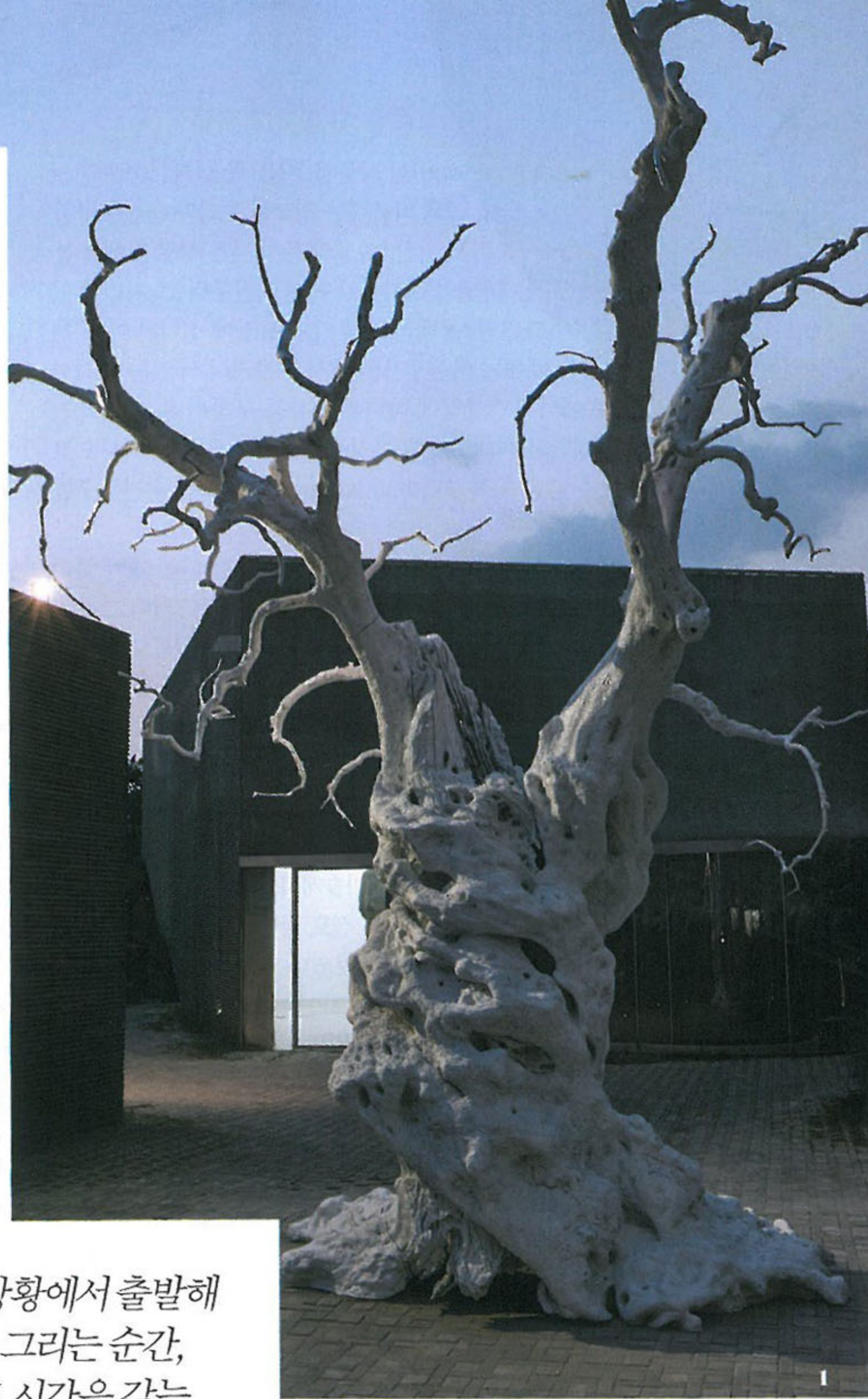
이런 전작들과 이번에 전시하는 청석조각 작품들은 언뜻 달라 보이지만, 분명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자연의 개념, 시간의 개념 등... 맞다. 방금 내가 설명한 바로 그 개념이다. 시간과 공간. 만달라, 별, 풍경, 구름 모두 독일의 낭만주의에서 기인한 컨셉트다. 궁극적으로 나의 모든 전시와 작품은 자연과 낭만주의, 두 가지 키워드로 귀결된다.

청석조각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풍경을 만들어낸다. 록펠러 센터 앞, 바젤 성당 앞, 그리고 이번 서울 전시처럼 화이트 큐브 안에 있을 때... 이들이 어떤 식으로 장소에 영향 받는다고 생각하나? 처음 국제갤러리의 화이트 큐브에서 전시하고 싶었던 작품은 훨씬 더 큰 사이즈의 대작이었다. 화이트 큐브를 보면서 자연적인, 있는 그대로의 뉴트럴한 느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흰 벽이 무한의 지평선을 상징하는 것처럼 다가왔기 때문에 큰 청석조각을 세우려고 했었다. 그런데 막상 건물을 보니 좀 더 작은 사이즈가 어울리겠다 싶었다. 영향을 받는다면, 그 공간에 대한 나의 느낌이 가장 먼저다. 록펠러 센터 앞에 섰을 때 도시적인 장소에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작업을 하자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다.

매우 흥미롭다. 보통 화이트 큐브라 하면 전시를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만 생각하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엘름그린 & 드라그셋 같은 아티스트는 이 중립적 공간이 인간의 행동을 제한한다고 가정하는데, 정반대로 무한성을 떠올린다니!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다. '바다의 승려(Monk by the Sea)'라는 작품인데, 끝없는 해안의 지평선을 바라보는 승려를 그린 것이다. 이 화이트 큐브를 처음 봤을 때 이 회화를 떠올렸다. 다른 전시회에서도 지평선을 다루어 왔다. 리버스톤(석조의 팽창된 형태)을 작품을 달고, 코너에 네 개의 비디오를 설치했었다. 두 명의 남자와 여자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장면을 내보내는 비디오 작품 중간에 이 세 가지 돌이 스피커 형태로 전시되어 멜랑콜리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어쨌든 여기에서도 화이트 큐브의 벽과 바닥이 만들어내는 선을 보고 지평선을 떠올렸다.

청석조각은 스톤헨지를 연상시킨다. 기존에도 사람 형상을 띤 전시를 해왔는데,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번이 인체 형상을 사용한 네 번째 전시다. 첫 번째 전시에는 내가 등장했다. 스튜디오 같은 공간 속, 닫혀 있는 창문에 스크린을 설치했고, 여기 내가 앉아서 시간을 보내며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전시의 주제였다. 두 번째는 7명의 광대가 있던 전시였다. 하루에 각기 다른 한 명씩 전시장에 등장해서 앉아 있었다. 세 번째 전시에는 14명의 인물상이 등장했다. 흙으로 만들어 같은 갈색이지만 각기 다른 색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청석조각이다. 사람의 몸을 이용한 전시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항상 수동적이었던 것. 나도, 광대도, 인물상도, 청석조각도 그저 명상을 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서 있다.

현대인들에게 수동성은 절대 미덕이 아니다. 수동적이어서는 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다고나 할까?(웃음) 당신은 수동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내가 이해하는 수동성이라는 개념은 시간을 창조하는 느낌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를테면 맨 처음 수동성으로 떠올린 모티프는 폐쇄된 창문이었었는데, 환경적, 사회적, 시간적인 측면을 온전히 차단하기 위해 창문을 막았었다. 그 안에 있는 작품들이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간의 흐름과 연관 없는 개념으로



“개인적인 상황에서 출발해
풍경화를 그리는 순간,
나 스스로 시간을 갖는
상황이 내게는 명상을 하듯
영적인 시간이었던 셈이다.
그것이 내가 내 삶을 다루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비춰지도록 하는 것이 내가 정의하는 수동성의 컨셉트다. 어떤 여자가 루프 속에서 끊임없이 도는 작업이 있었다. 루프라는 개념도 내가 이해했을 때 굉장히 수동적이다. A에서 B로, 선형적으로 목적지가 규정된 게 아니라 순환의 구조로 늘 원점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본인이 여장한 채 벽에 기대어 서 있는 20여 년 전 사진을 보여주며) 이 역시 수동적이다. 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전시

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들은 다 차단되는 순간이었기에 이 역시 수동성을 나타낸다.

단순하게는 이번 전시에서도 돌들이 그저 놓여 있으니 수동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수동성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하자면 꽤 복잡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걸 이해해야 이번 전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건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관객이 그냥 작품을 바라보는 것이다. 나는 늘 당신이 굳이 예술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냥 보고 느끼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냥 음악을 듣듯이, 마주할 때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내 바람이다.

요즘 현대미술은 이해해야 느끼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전시를 통해 당신이 현대미술에 대한 진실 혹은 편견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기대했었다. 조각의 형태에 능동성을 부여한다는 건 나의 가치를 주입시킨다는 뜻이다. 작품 앞에 선 관객이 각자의 감정을 투영할 수 있도록 결말을 열어두는 것이 내 작품의 수동성이다.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열린 해석을 가져올 수 없게 만든다.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현재 쓰는 언어를 반영하는 것이다. 동시에 예술은 시간을 초월하는 언어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현 시대에 보는 예술이 50년 후에는 또 다른 언어로 이해될 것이다.



1 갤러리 밖에서 있는 'Summer Moon'(2013~14). 우고 론디노네는 이렇게 말했다. "2천 살 먹은 올리브나무가 흥미로운 점은 그것을 벗겨서 주조함으로써 그것이 압축된 시간의 기념비가 된다는 사실이다. 주조된 올리브나무를 통해 관객은 그것이 살았던, 이제는 그것의 형태 속에 얼어붙은 시간인 실제 시간의 경과를 경험할 뿐 아니라, 이러한 변형을 통해 또 다른 보정된 시간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시간은 실제로 겪어낸 추상으로 경험될 수 있으며, 여기서 형태는 시간과 바람의 힘의 축적에 의해 형성된다." 2 2014년 록번드 미술관에 설치된 만달라 작품과 광대들 3 우고 론디노네 4 'Breathe Walk Die', 2014



사소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Feelings'라고 하면 당신이 청석조각에 붙인 제목처럼 참견쟁이, 호기심쟁이, 순종자, 변태 같은 단어를 떠올리게 하진 않는다. 그건 오히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경험에 가깝다. 어떻게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됐나? 딱딱하고 무생물적인 재료에 인간적인 감정의 이름을 붙인다면 그 대비가 더욱 확실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2년 전에는 '행복' 같은 쉬운 감정으로 시작했다. 일단 감정에 관한 어휘를 사전에서 꼭 찾아서 정리한 후 작품을 만든 순서대로 감정을 연결 짓는 식으로 이름을 붙였다. 그런데 90여 개를 만들고 나니 점점 설명하기 복잡한 감정으로 관심이 향하게 됐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감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을 표현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심지어 내가 봐도 누가 참견쟁이이고, 누가 순종자인지 잘 모른다. (웃음)

나의 지인은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건축과 돌뿐이다." 결국 건축도 돌로 만들어졌으니, 돌만이 영원한 것이라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당신의 작품에서도 돌은 남다른 재료다. 당신이 살고 있는 뉴욕 주에서 배를 타고 이곳 서울 삼청동까지 왔다. 돌은 어떤 재료인가? 처음 돌에 대한 나의 접근은 좀 더 문학적이고 철학적이었다. 돌은 시간과 공간을 응축하는 존재로서, 인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연결한다. 돌을 갖고 실제 조각을 하면서는 돌에 대한 생각도 실제화되었다. 세상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요소, 공간을 초월하여 여러 다른 장소를 결합하는 요소, 또한 모든 작품과 존재의 근간이 되는 지구의 뼈 같은 존재로 말이다.

"예술품의 영적이고 신비로운 힘을 믿는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예술을 가장 본능적으로 대한 원시 예술가 같은 느낌이었다. 당신이 믿는 미술의 힘이란 어떤 건가? 내 개인사와 연관되어 있다. 지난 1988년, 나의 남자친구가 에이즈로 사망했다. 굉장히 상심한 나는 위안을 얻기 위해 자연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매일 숲, 자연을 보면서 스케치를 하기 시작한 것이 초기에 나온 풍경화 작업이다. 봄, 여름, 가을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고, 겨울에는 만달라 작업을 했다. 그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 안에 시간의 가치관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그림에 시간을 제목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보니, 여기, 자연에는 사회적 의미의 시간적 요소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자연은 언제나 자연이니까... 개인적인 상황에서 출발해 풍경화를 그리는 순간, 나 스스로 시간을 갖는 상황이 내게는 명상을 하듯 영적인 시간이었던 셈이다. 내게 영적이란 단순히 '정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 즉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지점이다. 그것이 내가 내 삶을 다루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에 언급한 만달라는 우고 론디노네의 시그너처 스타일 중 하나다. "그해 겨울이 되자 더욱 명상적인 무언가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수채화 물감으로 원을 그리고 그것들을 입으로 붙였다. 어떤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였다." 시간으로 묶이는 그의 작업은 결국 갤러리 밖 마당에 심어진 올리브나무 'Summer Moon'에까지 이어진다. 삼청동 주택가의 골목을 배경으로 2천 년 된 올리브나무를 알루미늄 캐스팅해 만든 작품이 있다. 우고 론디노네의 부모는 그 조상이 9천 년 이상 동굴생활을 했던 이탈리아 고도시 마테라(Matera) 출신이라고 했다. 그의 부모의 조상의 시간, 그의 부모의 시간, 그의 시간, 나의 시간 그리고 나무의 시간이 중첩되며 아련해졌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참으로 간단하고 평면적인 시간을 살면서도 아등바등한다. 그렇기에 당신도 우고 론디노네가 만든 순수의 섬에서 오랜 시간 머물고 싶을 것이다. **B** 에디터/ 윤혜정

